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 :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영향\*

Emotion Regulation Among Nonmaternal Care Infants : The Effect of  
Separation/Nonmaternal Care Experiences and Child/Mother Variables\*

해전대학 아동복지과  
전임강사 양 연 숙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교 수 조 보 희

Dept. of Child Welfare, Hyejeon College

Full-time lecturer : Yang, Yeon Suk

Division of Science for Human Life, Kyung Hee Univ.

prof. : Cho, Bok Hee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was to examine whether early child-care experience,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mother/child factors, was associated with emotion regulation. Participants were forty 12-18 month-old infants, their mothers and their caregivers. Infants were observed in the Strange Situation to assess the pattern of emotion regulation. Mothers were interviewed, given questionnaires, and observed in play. Caregivers were observed in child care to assess the caregiving environment.

There were significant main effects of good quality child care on open emotion expression and heightening emotion expression.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revealed that infants were more likely to be open emotion expression when high maternal sensitivity /responsiveness was combined with good quality child care, or nonmaternal care initiated prior to six month of age. Infants were more likely to be minimizing

\* 본 논문은 2000년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emotion expression when low maternal sensitivity/responsiveness was combined with nonmaternal care initiated after six month of age, or more than one care arrangement. Difficult temperament infants received nonrelative care were somewhat more likely to be minimizing emotion expression. Infants were more likely to be heightening emotion expression when high maternal sensitivity/responsiveness was combined with relative care. Boys experiencing nonrelative care were more likely to be heightening emotion expression.

**주제어(Key Words):** 타인양육(nonmaternal),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 I. 서론

기혼여성의 사회활동이나 취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과거보다 많은 수의 영유아가 어려서부터 부모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 이에 생의 초기부터 시작되는 어머니와의 격리 및 타인양육 경험이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자녀 관계에 미칠 '위험 요소'에 관한 우려가 높다. 특히 생의 초기 형성한 애착관계가 이후 발달의 초석이 된다는 애착 이론에 의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영아와 어머니가 1차적 결속을 맺을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양육상황에서 어떠한 유형의 결속 관계가 형성되는지, 그로 인해 영아 발달에 어떠한 영향이 주어지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Belsky, 1986; Belsky & Rovine, 1988; Lamb & Sternberg, 1990)은 영아가 생후 1년 이내에 주 20시간 이상의 타인양육을 받을 때 그 경험이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와 상반된 주장들(Clark-Stewart, 1989;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Phillips & Howes, 1987)도 상당수 있어서, 타인양육 경험이 영아의 심리적 건강에 결정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처럼 생의 초기에 시도된 타인양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최근 초기 애착의 질과 정서조절이 관련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Cassidy, 1994; Kogan, 1997; Tompson, 1994). 애착은 기본적으로 정서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으며, 영아의 애착행동 유형은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조절 행동의 결과로서 정서조절 이

론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정 애착 영아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을 때 고통을 숨기기보다는 그것을 다루는데 있어 필요한 도움을 개방적,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즉, 부정적 정서를 독립적 혹은 대인관계 지향적 대처 전략을 통해 조절한다. 불안회피 애착 영아는 애착행동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애착대상과 거리를 유지하며, 양육을 유도하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는 정서 표현을 최소화한다. 부모와 재결합할 때 이들은 근접성 혹은 접촉에 덜 관심을 보이고 대부분 감정적 중립 상태를 보인다. 낯선 상황에서 격리에 대하여 극히 고통스러워하고, 재결합 상황에서 달래기 어려운 특성인 불안저항 애착 유형은 애착대상에게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과장된 부정적 정서성으로 어머니의 주의를 끄는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정서의 표현은 단순한 감정 표출의 의미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서로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여 원활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영아는 특정 상황에서 다양한 정서 표현의 결과를 예측하는 정서 도식(emotion schemas)을 획득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특정 환경에서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들을 평가해 나간다'(Thompson, 1994, p.39). 맥락 내에서 개인이 성취한 목표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적응적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정서적 경험과 표현을 조절하는 개인의 능력을 정서조절이라 한다. 따라서 개인이 성취한 정서조절은 특별한 양육역사에 반응하는 적응적 전략으로서, 영아가 처한 상황과 사회적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Cassidy(1994)는 정서

조절이 영아의 내적 특성과(성, 기질) 외적 상황(가정, 타인양육 상황) 및 대상(어머니, 타인양육자)에 의하여 영향받는다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인양육 영아의 발달과 부모자녀관계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침으로서 정서조절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모성격리모델(maternal separation model)에 근거하여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인을 추출하고 이들 변인이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모성격리모델이란 생의 초기 어머니와 격리되어 타인양육되는 영아의 발달은 모성격리에 대한 영아의 해석에 영향을 받으며, 격리 및 타인양육의 특성뿐만 아니라 영아 자신의 특성, 어머니 및 가정의 특성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재된다는 관점이다(Jaeger & Weinraub, 1990). 즉, 타인양육을 경험하는 영아의 발달은 어머니와의 반복되는 격리에 대한 영아의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격리특성(격리시간, 빈도, 격리에 대한 예측), 어머니 부재 동안 영아가 경험하는 타인양육 특성(타인양육의 질, 시작시기, 유형, 안정성), 영아 자신의 특성(성, 기질), 그리고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에 의해 중재되고 이 특성들간에는 상호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영아의 정서조절 행동을 유형화하거나 정서조절에 미치는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 영아 특성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각각의 변인이 영아의 정서조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에게 있어 어머니 즉 주양육자의 부재는 조절을 혼란에 빠뜨리고 새로운 조절전략을 선택하게 하는 커다란 사건으로서, 초기에, 장시간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어머니의 부재는 영아의 정서, 놀이 행동, 활동 수준, 심장 박동, 수면 및 식사 패턴 등에서 부정적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eild, 1994; Schanberg & Feild, 1987). 그러나 어머니의 부재동안 민감한 양육자에 의해 안정되게 돌보아지는 경우 격리 스트레스가 완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Schanberg & Feild, 1987). 격리 및 타인양육 스트

레스에 반응하는 개인차 또한 영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격리 상황에서 보다 스트레스를 느끼며 상대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Tronick & Cohn, 1989; Eisenberg & Fabes, 1992), 기질과 정서조절간의 유의한 상관도 보고되고 있다(Karraker & Lake, 1991; Tronick, 1989). 어머니-영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은 정서조절 발달에서 중요한 변인이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하고 지지적인 반응은 영아가 정서를 건설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며,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돕는다(Eisenberg & Fabes, 1992). 반대로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들은 영아의 정서적 각성을 증가시키고, 정서이해를 저해시켜 사회적으로 적합한 정서조절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ffman, 1989).

본 연구는 영아의 정서 조절이 특별한 양육역사에 반응하는 적응적 전략의 일부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 유형을 살펴보고, 타인양육 경험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단순 모델에서 벗어나 영아 자신의 특성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을 포함시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의 초기 타인양육 상황이 영아의 정서조절에 작용하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영아 특성 및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가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효과 가설로서 (1) 초기, 광범위하고, 불안정하며, 질이 빈약한 타인양육을 받거나, (2) 까다로운 기질을 지니고, 남아인 경우, (3)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이 빈약할 때 이러한 특성이 영아의 정서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상호작용 효과 가설은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이 어머니 및 아동의 여러 측면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정서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상호작용의 한 측면은 많은 양의 타인양육, 빈약한 질, 양육자의 교체 빈도가 영아가 지닌 다른 위험(예: 까다로운 기질, 남아일 때)과 결합할 때, 또한 어머니가 영아에 대하여 덜

민감하고 덜 반응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가정에 거주할 때 부정적 정서조절의 가능성이 더 증가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상호작용 가설은 가족 혹은 영아의 위험이 높을 때(예: 민감하지 않은 양육, 까다로운 기질) 타인양육이 초기에 양질로 제공된다면 타인양육 경험이 영아의 정서조절 발달에 보상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 유형은 어떠한가?
2.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2-1. 영아의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영아 및 어머니 특성이 영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2. 영아의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영아 및 어머니 특성간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주 20시간 이상 타인양육을 받고 있는 12-18개월 영아 40명(남아 19명, 여아 21명)과 그들의 어머니 및 타인양육자이다. 연구대상 영아는 정상분만아로서 다양한 타인 양육 형태(조부모, 혈연, 비혈연, 가정보육 및 기관보육)에서 현재의 타인양육자에게 2개월 이상 양육받고 있는 영아로 제한하였다.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아과, 어린이집, 놀이방을 통하여 본 연구의 조건에 맞는 가정을 소개받아, 각 가정에 연구의 취지와 참여를 부탁하는 편지와 전화로 연구협조를 의뢰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의 평균연령은 15.8개월( $SD=2.2$ )이었고, 어머니의 연령은 25세에서 38세로 평균 30.4세( $SD=3.4$ )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 25명(62.5%)으로 고졸 9명(22.5%), 대학원졸 6명(15.0%)보다 많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직 16

〈표 1〉 연구대상 영아의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격리시간	40시간미만	8(20.0)
	40-60시간 미만	16(40.0)
	60시간 이상	16(40.0)
격리규칙성	규칙적	27(67.5)
	불규칙적	13(32.5)
타인양육 시작시기	출생후	14(35.0)
	6개월이전	19(47.5)
	6개월이후	7(17.5)
타인양육 유형	혈연	21(52.5)
	비혈연	19(47.5)
타인양육 안정성	0회	22(55.0)
	1회	10(25.0)
	2회이상	8(20.0)

명(40.0%), 사무직 15명(37.5%), 판매서비스직 6명(15.0%), 기타 3명(7.5%)이었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28명은 종일제로 근무하였으며, 4명(10.0%)은 반일제, 8명(20.0%)은 파트타임제로 일하였다. 연구대상 영아의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연구도구 및 절차

#### 1) 영아의 정서조절

정서조절은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나 갈등에 대하여 개인이 정서적 자극 축진의 정도를 조절하는 대처능력이다. 이에 스트레스의 양을 점차 증가시키는 3분짜리 에피소드 여덟 개로 구성되어 있는 '낮선상황'(Ainsworth, 1978)을 통해 영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였다. 낮선상황 절차 중 어머니와 격리 후 재결합하는 다섯번 번째와 여덟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타난 영아의 행동을 Weinberg와 Tronick(1999)의 Infant & Caregiver Engagement Phases(ICEP) 중 Infant Engagement Phases를 이용하여 1초 단위로 분석하였다. 영아의 얼굴 표정, 몸짓, 신호, 응시 방향 및 음성화를 근거로 영아의 참여행동을 4가지 범주 중 하나의 범주로 분석하였으며, 반응행동은 그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발생빈도를 기록하였다.

영아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대상이나 특성에 따라

참여장면은 부정적 참여, 대상/환경 참여, 사회적 조정, 사회적·긍정적 참여로 분석되었다.

가. 부정적 참여(Negative Engagement): 영아는 부정적인 얼굴 표정을 보이며, 흐느껴 울거나, 불평, 까다롭게 구는, 혹은 울음이 섞인 음성화를 한다.

나. 대상/환경 참여(Object/Environment Engagement): 영아가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대상을 응시하거나 조작한다.

다. 사회적 조정(Social Monitor): 영아가 양육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신호를 보낸다.

라. 사회적·긍정적 참여(Social Positive Engagement): 영아는 즐거운, 미소나 얼굴 표정을 보이며 양육자와 긍정적 방식으로 음성화하거나 활동에 참여한다.

정서조절 전략으로서 영아가 나타내는 반응행동은 자기 위안, 거리 두기, 스트레스 표시로 분석되었다.

가. 자기 위안(Self-comforting): 입으로 자신의 신체나 사물을 빨거나 손으로 자신을 꼭 안거나 쓰다듬는다.

나. 거리두기(Distancing): 양육자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유지, 증가시키기 위하여 양육자로부터 몸을 돌리거나 비틀고, 등을 구부리거나 엎드린다.

다. 스트레스 표시(Infant autonomic stress indicators):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행동이나 토하거나 땀꼭질 등과 같은 각성 상태를 자동적으로 보인다.

영아의 정서조절은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 분석자가 함께 비디오 테이프를 반복 관찰하면서 훈련하였으며, 영아의 참여장면과 반응행동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85-.94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이후 정서조절 평정은 분석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초기 10개의 사례에 대한 재검사신뢰도는 .82-.92이었다.

## 2)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

타인양육의 질은 다양한 타인양육 유형을 받고 있는 영유아의 양육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NICHD 연구(1996)에서 개발된 양육환경 관찰 척도(Observation Record of the Caregiving Environment)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양육환경 관찰 척도는 기

존의 양육환경 척도와는 달리 조부모, 혈연, 비혈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양육에서부터 가정 및 기관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양육까지 다양한 타인양육 유형에서 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타인양육의 질 관찰은 타인양육 장소를 방문하여 영아와 타인양육자가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관찰은 10분씩 4번의 행동관찰과 마지막 4분의 질적 평정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2주 이내의 기간 안에 4회 실시하게 되어있다. 관찰자는 양육자가 영아에게 보이는 행동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양육행동 관찰척도에 기초하여 각 10분마다 30초 관찰과 30초 기록을 반복하며, 그 동안의 관찰에 기초하여 양육의 질을 4점 척도로 평정한다(구체적인 내용은 양연숙, 2000 참조). 1, 2차 관찰은 오전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어머니가 오후에 출근하는 경우(2명) 오후에 관찰하였다. 각 영아당 관찰에 소요된 평균 시간은 5.37시간(SD=1.32)이었다.

타인양육의 질은 긍정적 양육 행동과 긍정적 양육의 질로 평정된다. 긍정적 양육의 행동은 관찰4된 양육행동 중 긍정적 행동(공유된 긍정적 애정+긍정적 신체 접촉), 반응적 행동(음성에 대한 반응+영아 행동·촉진) 그리고 행동 자극하기(인지발달 자극+사회성 발달 자극+질문하기+그외 이야기하기+책 읽어주기)의 빈도를 합하여 산출한다. 긍정적 양육의 질은 일상적 및 고통 상황에서의 민감성 및 반응성, 긍정적 관심, 인지발달 자극, 분리(역체점), 무미건조한 정서반응(역체점) 각 영역마다 4점척도를 이용하여 질적 평정된 점수를 합해하여 산출한다. 타인양육의 질은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타인양육 상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와 실제 타인양육 현장에서의 관찰을 통해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행동평정에서는 비디오인 경우 .77-.90, 현장인 경우 .62-.87이었으며, 질적 평정에서는 비디오인 경우 .67-.85, 현장인 경우 .71-.89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어머니 및 타인양육자와의 면담을 통해 격리시간, 격리빈도, 격리 규칙성과 타인양육 시작시기, 타인양육유형, 타인양육의 안정성이 측정되었다.

### 3)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Kochanska(1998)가 고안한 에피소드의 시간과 수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낮은 상황을 마친 어머니와 영아는 다른 실험실로 이동하며, 각 5분씩 네 가지 상황에 놓여진다: 에피소드 1. 어머니는 영아에게 간식을 먹인다. 에피소드 2. 어머니는 놀잇감을 가지고 영아와 함께 논다. 에피소드 3. 어머니는 질문지를 작성한다. 에피소드 4. 어머니는 영아가 놀잇감을 정리하도록 한다. 실험실은 네모난 방의 중앙에 1.5×2m의 카펫을 깔고, 낮은 테이블을 준비한 후 어린이용 쇼파, 커튼, 그림 등으로 일상적인 공간처럼 꾸며졌으며, 한쪽 벽에는 여러 종류의 과자, 음료, 접시와 컵을 배치하였다.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은 영아가 보내는 고통, 신호, 요구에 대하여 어머니가 보이는 즉각적이고 민감하면서도 진지하고, 수용적이며, 정서적으로 유용성을 지닌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Kochanska, 1998).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은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 평정되었다. 첫째,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중에서 '영아관련 사건'을 1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영아관련 사건이란 영아가 시도하거나 주도하는 행위로서 어머니에게 신호나 반응을 요구하는 특정 사건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고통, 주의를 끌려는 시도, 영향력 시도, 도구적 도움 요구, 생리적 신호를 영아관련 사건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둘째, 영아관련 사건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각각의 반응을 평정하였다. 어머니의 행동은 빈약한, 보통, 좋은, 뛰어난으로 평정되었다. 각 반응은 빈약한 -2, 보통 -1, 좋은 +1, 뛰어난 +2로 점수화 하였다. 셋째, 같은 범주에 속한 영아관련 사건에 부여된 점수가 합해진 후 각 범주별 사건수에 의해 나누어져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 점수가 산출되었다.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상호작용의 질은 연구자와 분석자가 함께 비디오를 반복 관찰하면서 평정점수가 일치하도록 훈련하였다. 아동 관련 사건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78-.81이었으며, 각 사건에 대한 평정은 .84-.89의 신뢰도를 나타내었

다. 이후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상호작용의 질은 분석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초기 10개 사례에 대한 재검사 신뢰도는 아동관련 사건에서 .74-.85, 각 사건에 대한 평정에서 .83-.91이었다.

### 4) 영아 특성에 관한 질문지

영아 특성은 성과 기질로서,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Fullard, McDevitt와 Carey(1984)의 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TTQ)를 최영희(1989)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세에서 3세까지의 영아의 기질을 어머니의 보고를 통하여 측정하는 질문지로 9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 문항 수는 97개로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까다로운 기질 유형 분류시 이용되는 생리적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 5개 영역 55문항을 사용하였다.

## 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빈도, 백분율 및 평균을 통해 산출하였다. 영아의 정서조절 유형을 확정짓기 위해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서조절 유형별 정서조절 행동 특성은 평균, 일원변량분석 및 Duncan 사후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영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독립적·상호작용적 영향력과 선택 확률을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

본 연구에서는 낮은 상황에서 관찰된 영아의 정서조절 행동을 변인으로 하여 정서조절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적절한 정서조절 유형의 개수를 통계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

형이 갖는 설명력은 증가하였으나 정서조절을 유형화하려면 모형이 갖는 설명력 뿐만 아니라 각 집단이 지니는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므로 각 집단내 사례들간의 거리의 평균자승화의 표준편차(Root-Mean-Square)가 급격히 증가하고, Pseudo F 값과 Pseudo t2값이 떨어지는 지점에서의 집단 수를 조사한 결과 3개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R^2=.664$ ). 각 집단의 중심으로부터 집단 내 사례간의 거리가 .59이하인 3개의 집단이 도출되었다. 정서조절 유형별 정서조절 행동은 <표 2>와 같다.

정서조절 유형을 보면, '유형 A(35%)'는 사회적 조정, 사회적/긍정적 참여, 자기 위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집단으로, 부정적 참여가 적은 반면, 대상/환경에의 참여가 높은 집단이다. 즉,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을 때 이를 어머니에게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정적 정서를 독립적 혹은 대인관계 지향적 대처전략을 통해 개방적·적응적으로 조정하는 유형을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B(30%)'는 대상/환경 참여와 거리두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집단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 참여와 사회적/긍정적 참여가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즉, 이 유형은 부정적 정서표현을 최소화하고, 대상/환경에 참여하는 자기 의존적 전략을 선호하고, 어머니와 일정 거리를 유지

함으로써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자제한다. 따라서 이 유형을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C(35%)'는 부정적 참여, 스트레스 표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대상/환경 참여가 적은 집단이다. 유형 3의 부정적 참여와 스트레스 표시의 평균점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유형 1이 45.2%, 16.7%, 유형 2가 19.4%, 8%로 나타나 유형 3이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를 보다 강하게 느끼고 쉽게 해소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대상/환경에 대한 참여도 상당히 적게 나타나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하기보다는 외적 조절 자원을 지닌 타인에게 의존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을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정서조절 유형의 명명은 영아의 정서조절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한 Cassidy(1994)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형의 특성에 적합한 용어를 선정하였다.

## 2.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타인양육을 경험하고 있는 영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격리시간·빈도·규칙성, 타인양육의 질·시작시기·유형·안정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 영

<표 2> 정서조절 유형별 정서조절 행동에 대한 평균 및 일원변량분석

	정서조절 유형			F	Duncan
	<유형 A> 개방적 정서표현 (N=14)	<유형 B> 억제된 정서표현 (N=12)	<유형 C> 과장된 정서표현 (N=14)		
	M(SD)	M(SD)	M(SD)		
부정적 참여	11.39(3.37)	4.92(5.44)	25.18(4.97)	131.62***	C>A>B
대상/환경 참여	155.89(3.33)	168.08(3.48)	146.11(4.75)	202.31***	B>A>C
사회적 조정	10.89(5.56)	6.38(3.24)	6.89(5.10)	7.15**	A>C=B
사회적/긍정적참여	3.25(3.10)	0.75(0.10)	2.14(2.05)	7.88***	A=C>B
자기-위안	4.79(7.18)	2.25(4.79)	2.54(4.10)	1.69	
거리두기	0.43(1.09)	1.96(3.66)	0.46(1.31)	3.83**	B>A=C
스트레스표시	0.18(0.31)	0.08(0.19)	1.18(1.71)	9.36***	C>A=B

\*\* p<.01 \*\*\* p<.001

아의 성·기질)의 직접적인 영향과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sup>1)</sup>을 실시하였다.

### 1)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독립적 효과

영아의 정서조절에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독립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수추정치(parameter Estimate)의 정적(+)계수는 독립변수가 각 유형의 확률을 높여주는 것을 말하는 반면, 부적(-)계수는 그 가능성을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또한 각 변인에 대한 Wald  $\chi^2$ 는 변인이 갖는 정서조절 유형의 효과를 나타내며, odds 변화량<sup>2)</sup>은 각 정서조절 유형을 선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영아의 정서조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타

인양육의 질로서, 개방적 정서표현에는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며(Wald  $\chi^2=6.98$ ,  $p<.01$ ), 억제된

- 1)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이란 종속변수가 범주/명명 척도로서 이분화되어 있고, 독립변수에 명명 척도 또는 서열척도와 같은 정성적인 척도와 등간척도가 섞여 있는 경우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개방적 정서표현 대 억제된/과장된 정서표현 집단, 억제된 정서표현 대 개방적/과장된 정서표현 집단, 과장된 정서표현 대 개방적/억제된 정서표현 집단의 이분적 성격을 지니도록 재구성되었으며, 이분화된 종속변인 중 하나의 속성을 선택하는 독립변인의 선택확률을 통해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예측력을 분석한다.
- 2) Odds 변화량이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기대값과 일어나지 않을 기대값의 비(ratio)이다. 예를들어 Odds 변화량이 5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기대성이 일어나지 않을 기대성보다 5배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Odds 변화량이 1보다 클수록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커진다.

<표 3>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의 특성이 영아의 정서조절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개방적 정서표현			억제된 정서표현			과장된 정서표현		
	Parameter Estimate	Wald $\chi^2$	Odds 변화량	Parameter Estimate	Wald $\chi^2$	Odds 변화량	Parameter Estimate	Wald $\chi^2$	Odds 변화량
어머니 및 영아특성: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0.33	1.81	126.00	-0.32	2.30	0.72	-0.11	0.22	0.90
영아의 기질	0.82	0.73	110.00	0.15	0.03	1.16	-0.72	0.54	0.49
영아의 성 <sup>a</sup>	1.17	2.56	0.01	-0.10	0.03	0.90	-1.55	3.72	0.21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									
긍정적 양육 행동	0.03	3.71	1.13	-0.00	0.00	1.00	0.04	3.09	1.04
긍정적 양육의 질	3.98	6.98**	123.00	0.09	0.01	1.10	-5.09	8.15**	1.01
격리시간	0.00	0.01	0.96	0.00	0.18	1.01	-0.02	0.72	0.98
격리빈도	0.50	3.66	41.67	-0.12	0.22	0.89	-0.64	1.37	0.53
격리의 규칙성 <sup>b</sup>	0.87	0.92	0.00	-0.51	0.39	0.60	0.18	0.03	1.19
타인양육 시작시기 <sup>c</sup>	0.12	0.05	109.00	-0.09	0.02	0.91	0.48	0.50	1.61
타인양육 유형 <sup>d</sup>	0.52	0.40	0.03	-1.38	2.38	0.25	0.02	0.00	1.03
타인양육의 안정성	0.60	2.17	3.19	-0.11	0.10	0.89	-0.63	1.70	0.53
상수		-17.491			1.834			15.410	
-2 Log L		103.591			85.283			103.591	
$\chi^2$		28.374***			12.455			31.851***	

<sup>a</sup> 1=남아, 2=영아 \*\*  $p<.01$  \*\*\*  $p<.001$

<sup>b</sup> 1=불규칙적, 2=규칙적

<sup>c</sup> 1=0개월, 2=6개월 이전, 3=6개월 이후

<sup>d</sup> 1=비혈연, 2=혈연



정서표현에는 부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Wald  $\chi^2=8.15, p<.01$ ). 보다 긍정적인 타인양육을 경험하고 있는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개방적 그리고 적응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질적 수준이 낮은 타인양육을 경험하는 영아는 과장된 정서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타인양육의 질을 제외한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영아 및 어머니 특성은 정서조절 유형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2)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간의 상호작용 효과

(1) 영아의 개방적 정서표현  
영아의 개방적 정서표현에 대한 격리 및 타인양

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긍정적 양육 행동,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긍정적 양육의 질,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타인양육 시작시기, 그리고 영아의 기질×긍정적 양육의 질이 영아의 개방적 정서표현을 의미 있게 예측하였다. 이들 변인의 상호작용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이나 타인양육의 질 그리고 영아의 기질과 같은 연속변인을 범주화하여 개방적 정서표현에 대한 선택확률을 추정하였다. <표 4>에는 예측되는 안정 애착의 비율(p)과 표준오차(SE) 그리고 빈도(n)가 제시되어 있다.

개방적 정서표현을 선택할 확률은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으면서, 영아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표 4> 영아의 개방적 정서표현에 대한 선택확률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긍정적 양육 행동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긍정적 양육 행동								
	낮음			중간			높음		
	p	SE	n	p	SE	n	p	SE	n
낮음	.20	.10	(3)	.20	.10	(5)	.50	.14	(2)
중간	.40	.09	(5)	.50	.13	(11)	.50	.16	(4)
높음	.40	.14	(2)	.50	.13	(4)	.68	.15	(4)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긍정적 양육의 질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긍정적 양육의 질								
	낮음			중간			높음		
	p	SE	n	p	SE	n	p	SE	n
낮음	.12	.08	(3)	.22	.10	(6)	.32	.16	(1)
중간	.24	.11	(5)	.41	.09	(10)	.63	.13	(5)
높음	.22	.12	(2)	.48	.13	(4)	.60	.14	(4)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타인양육 시작시기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타인양육 시작시기								
	0개월			6개월이전			6개월이후		
	p	SE	n	p	SE	n	p	SE	n
낮음	.09	.06	(5)	.49	.15	(3)	.19	.12	(2)
중간	.16	.08	(6)	.64	.09	(12)	.30	.15	(2)
높음	.19	.11	(3)	.70	.14	(4)	.35	.15	(3)

  

영아의 기질×긍정적 양육의 질									
영아의 기질	긍정적 양육의 질								
	낮음			중간			높음		
	p	SE	n	p	SE	n	p	SE	n
순환 기질	.13	.10	(1)	.31	.11	(8)	.46	.17	(1)
중간 기질	.17	.09	(4)	.37	.10	(11)	.56	.13	(5)
까다로운 기질	.24	.11	(5)	.48	.18	(1)	.68	.15	(4)

타인양육의 질(긍정적 양육행동과 긍정적 양육의 질)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양육 시작시기가 6개월 이전인 집단이 출생 후 바로 시작한 집단이나 6개월 이후에 타인양육을 시작한 집단보다 어머니로부터 양질의 상호작용을 받음에 따라 .49에서 .70으로 개방적 정서표현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한편, 영아의 기질과 타인양육의 질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는데, 타인양육의 질이 높은 경우 중간 기질(.56)과 까다로운 기질(.68)의 영아가 보다 개방적인 정서표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았다.

(2) 영아의 억제된 정서표현

영아의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에 대한 관련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타인양육 시작시기,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타인양육의 안정성 그리고 영아의 기질×타인양육 유형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변인을 범주화하여 억제된 정서표현에 대한 선택확률을 추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영아의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 선택확률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이 낮게 평가되고, 영아의 타인양육 시작시기가 출생직후이거나(.62), 6개월 이후인 경우(.74)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의 가능성이 높았다. 어

3) 애착 유형에 대한 선택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연속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되었다.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타인양육의 질(긍정적 양육 행동, 긍정적 양육의 질)은 4분편차를 이용하여 상위 4분위에 있는 대상은 '높은', 하위 4분위에 있는 대상은 '낮은' 그리고 50%에 해당되는 중간 대상은 '중간'으로 범주화되었다. 영아의 기질은 Carey와 McDevitt(1978)의 기준에 따라 순한 기질, 중간 기질, 까다로운 기질로 분류되었다. 생리적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의 5개 기질 영역에서 4개 이상의 영역의 점수가 평균보다 작고, 한 영역의 점수가 평균보다 크더라도 그 차이가 1 표준편차(SD)를 넘지 않는 경우 순한 기질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질영역 중 반응강도를 반드시 포함한 4개 이상 영역의 점수가 평균보다 크되, 2개 이상 영역의 점수가 1 표준편차(SD)보다 큰 경우를 까다로운 기질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를 중간 기질로 분류하였다.

<표 5> 영아의 억제된 정서표현에 대한 선택확률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타인양육 시작시기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타인양육 시작시기								
	0개월			6개월이전			6개월이후		
	p	SE	n	p	SE	n	p	SE	n
낮음	.62	.13	(5)	.48	.14	(3)	.74	.16	(2)
중간	.40	.11	(6)	.30	.07	(12)	.52	.17	(2)
높음	.30	.11	(3)	.13	.08	(4)	.40	.14	(3)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타인양육 안정성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타인양육 안정성								
	0회			1회			2회이상		
	p	SE	n	p	SE	n	p	SE	n
낮음	.51	.12	(7)	.69	.06	(1)	.92	.19	(2)
중간	.07	.04	(9)	.13	.09	(7)	.65	.12	(4)
높음	.08	.05	(6)	.15	.11	(2)	.60	.19	(2)
영아의 기질×타인양육 유형									
영아의 기질	타인양육 유형								
	혈연			비혈연					
	p	SE	n	p	SE	n			
순한 기질	.15	.09	(2)	.46	.12	(5)			
중간 기질	.18	.07	(12)	.51	.12	(3)			
까다로운 기질	.25	.11	(3)	.60	.13	(3)			

〈표 6〉 영아의 과장된 정서표현에 대한 선택확률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 타인양육 유형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타인양육 유형					
	혈연			비혈연		
	p	SE	n	p	SE	n
낮음	.43	.13	(6)	.10	.06	(4)
중간	.52	.10	(11)	.14	.07	(9)
높음	.66	.13	(4)	.22	.10	(6)

  

영아의 기질 × 긍정적 양육의 질									
영아의 기질	긍정적 양육의 질								
	낮음			중간			높음		
	p	SE	n	p	SE	n	p	SE	n
순한 기질	.28	.15	(1)	.35	.12	(8)	.09	.07	(1)
중간 기질	.36	.14	(4)	.55	.10	(11)	.08	.08	(5)
까다로운 기질	.25	.12	(5)	.64	.18	(1)	.06	.06	(4)

  

영아의 성 × 타인양육 유형						
영아의 성	타인양육 유형					
	혈연			비혈연		
	p	SE	n	p	SE	n
남아	.20	.08	(11)	.68	.10	(8)
여아	.13	.06	(10)	.46	.10	(11)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과 타인양육 안정성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타인양육자 변경 횟수가 증가할수록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의 가능성이 높아졌다(.51, .69, .92). 타인양육자를 2회이상 변경한 집단에서는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이 높은 집단(.60), 중간집단(.65)에서도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비혈연에 의해 타인양육을 받는 영아의 기질이 까다로운 집단에서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

(3) 영아의 과장된 정서표현

영아의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에 대한 관련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 × 타인양육 유형, 영아의 기질 × 긍정적 양육의 질, 그리고 영아의 성 × 타인양육의 유형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을 범주화하여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에 대한 선택확률을 추정해 보면 〈표 6〉과 같다.

혈연에 의해 타인양육되고 있는 영아가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질이 중간(.52)이거나 높은(.66) 집단의

어머니와 결합할 경우, 또는 비혈연에 의해 돌보아지는 남아의 경우(.68)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일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까다로운 기질과 중간기질의 영아가 타인양육의 질이 높을 경우 개방적 정서표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타인양육의 질이 높지 않을 경우 과장된 정서표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20시간 이상 타인양육 받고 있는 12-18개월 사이의 영아와 그들의 양육자(어머니와 타인양육자)를 대상으로 영아의 정서조절 유형과 이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은 '개방적 정서표현'(35%), '억제된 정서표현'(30%), '과장된 정서표현'(35%)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을 때 이를 어머니에게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즉, 부정적 정서를 독립적 혹은 대인관계 지향적 대처전략을 통해 개방적·적응적으로 조절하는 유형이다.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은 부정적 정서 표현을 억제하고, 대상/환경에 참여하는 자기 의존적 전략을 선호하고, 어머니와 일정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자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은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를 보다 강하게 느끼고,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외적 조절 자원을 지닌 타인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서조절의 유형과 명명은 기존 연구의 정서조절 행동에 대한 서술에서 벗어나 우리 나라 영아의 정서조절 유형화를 시도하고 특성에 따라 명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영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격리 및 타인양육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독립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보다 긍정적인 타인양육을 경험하고 있는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개방적 그리고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경향이 크며, 반대로 질적 수준이 낮은 타인양육을 경험하는 영아는 과장된 정서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부재동안 민감한 양육자에 의해 안정되게 돌보아지는 경우 격리 스트레스가 완충되고 보다 바람직한 정서조절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Schanberg와 Feild(1987)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편, 영아의 정서조절 행동은 초기에, 장시간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어머니의 부재(Feild, 1994; Schanberg & Feild, 1987), 영아의 성(Tronick & Cohn, 1989; Eisenberg & Fabes, 1992)과 기질(Karraker & Lake, 1991; Tronick, 1989) 그리고 어머니-영아 상호작용(Eisenberg & Fabes, 1992; Hoffman, 1989)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타인양육의 질로서, 특정 대상과 환경에 맞추어 정서조절을 발달시키는 영아가 어머니 부재 동안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민감한 타인양육자에 의해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반응되는 경우 영아가 이

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과정을 덜 일으키고 정서를 건설적으로 발달시켜 나가는 반면, 타인양육의 질이 낮을 경우 오히려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느끼게 되고 이를 외적 조절 자원을 지닌 타인(어머니)에게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장된 정서표현 전략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아의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이 영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은 어머니 및 영아 특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었다.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질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타인양육자의 영아에 대한 상호작용의 질이 높을수록 개방적 정서표현 유형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양육자로부터 양질의 양육을 받는 영아의 경우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가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환경에 의해 개방적으로 표현되고 적응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촉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은 경우 6개월 이전에 타인양육을 시작한 집단이 출생 후 바로 시작한 집단이나 6개월 이후에 타인양육을 시작한 집단보다 개방적 정서표현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그 반대의 경우 억제된 정서표현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어머니로부터 격리되었을 때 영아의 울음이 초기 몇 개월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4-7개월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연구(Kagan, 1978)와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영아가 정서를 건설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연구결과(Eisenberg & Fabes, 1992)를 통해 어머니의 부재에 슬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에 시작된 타인양육이 어머니의 양질의 상호작용에 의해 부정적 정서를 개방적·적응적으로 조절하는 조절 능력을 촉진한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아직 어머니 부재에 대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시기에 시작하는 경우나 어머니 부재에 대해 가장 민감한 시기에 시작한 타인양육이 민감하거나 반응적이지 못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과 결합할 때 억제된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과 타인양육 안정성간의 상호작용은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과 관련되었다.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이 낮을 때 타인양육자 변경 횟수가 증가할수록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타인양육자를 2회이상 변경한 집단에서는 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이 높은 집단에서도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었다. 이는 생의 초기 잦은 양육자의 변경은 양육환경의 변화 및 일관성 부족을 가져오고(Clarke-Stewart, 1989), 이는 영아가 어머니의 부재를 거부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여(Jaeger & Weinraub, 1990) 민감하지 않은 어머니를 향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기보다는 최소화하고 사회적/긍정적 참여를 자제하는 억제된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혈연에 의해 타인양육되고 있는 영아가 어머니로부터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질이 중간이상인 경우 과장된 정서표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경우 혈연에 의한 타인양육이 대부분 조부모에 의한 양육이었고, 조부모가 과잉보호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는 일반적 우려를 고려할 때, 영아가 민감하고 반응적인 어머니와 보호적이고 익애적인 조부모라는 양육환경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외적 조절자원을 지닌 양육자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과장된 정서표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혈연과 비혈연이라는 타인양육 유형 분류 속에 내재한 질적 차이가 대상 선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되며,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영아 특성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가 타인양육의 질이 높은 경우 개방적 정서표현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반대의 경우 과장된 정서표현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가 낯선이와 낯선 상황에 더 두려움을 느끼고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일반적 견해와는 모순되어 보이나 민감하고 반응적인 타인양육자에 의해 영아의 정서와 표현이 일관성 있게 수용될 때 보다 적

극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비혈연에 의해 타인양육을 받는 경우 영아의 기질이 까다로운 집단에서 억제된 정서표현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아의 경우 과장된 정서표현 유형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부정적 정서를 많이 보이고 정서적 반응이 격렬하며, 낯선 사람이나 장소와 접하면 회피하고 하는 까다로운 기질을 지닌 영아가 비혈연에 의해 양육되는 대부분 가정 밖에서 양육되므로(본 연구에서는 19명 중 17명),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야 하며 이것이 영아에게 정서축소 유형을 보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격리 상황에 대해 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인데, 비혈연에 의해 돌보아지는 경우 가정과는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고 있어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고 이를 쉽게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은 긍정적인 타인양육의 질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즉, 보다 긍정적인 타인양육을 경험하고 있는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개방적으로 조절하는 경향이 크며, 반대로 질적 수준이 낮은 타인양육을 경험하는 영아가 과장된 정서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영아의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은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쳤다. 타인양육의 시기가 6개월 이전인 영아가 어머니로부터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을 받을 때 개방적 정서표현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그 반대의 경우 억제된 정서표현의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타인양육자가 자주 바뀐 영아가 어머니로부터 민감하고 반응적이지 못한 양육을 받을 때와 비혈연에 의해 양육되는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는 억제된 정서표현의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과장된 정서표현은 어머니로부터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양육되는 혈연에 의해 타인양육되는 영아와 비혈연에 의해 타인양육 되는 남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의 표집수가 적고, 중류층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타인양육 상황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포함하

고 있어 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민감하고 반응적인 타인양육의 질은 영아의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어머니 및 영아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타인양육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함께 양질의 보육 실시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과 감독 그리고 현행 규정에 대한 강화가 요구된다. 타인양육되고 있는 영아의 대부분이 보육기관보다는 혈연이나 비혈연에 의해 비형식적으로 돌보아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보육 유형의 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대학, 보육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며, TV나 잡지 등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도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부모에게 타인양육이 영아발달과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타인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며, 영아기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실제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의 유형과 발달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또한 정서조절의 개인차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는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이해의 폭을 보다 확장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영아의 정서조절 유형을 탐색하고, 생의 초기 타인양육 상황이 영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영아발달에 바람직한 어머니 및 타인 양육환경에 대한 제안을 이끌어내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 참고문헌

- 양연숙(2000).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영희(1989). 기질 측정의 타당성 조사 연구. 원우총론(숙명여자대학교), 7, 137-154.
- Belsky, J. (1986). Infant day care: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6(5), 1-9.
- Belsky, J., & Rovine, M. (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57-176.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N.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228-249.
- Clarke-Stewart, K. A. (1989). Infant day care: Malignant or Maligned. *American Psychologist*, 44, 266-273.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and its regulation in early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Field, T. (1994). The effects of mother's physical and emotional unavailability on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08-227.
- Jaeger, E., & Weinraub, M. (1990). Early nonmaternal care and infant attachment: In search of process. In K. McCartney(Ed.), *Child care and maternal employment: A social ecology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 Hoffman, L. W. (1989).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 283-292.
- Kagan, J. (1978). *Infancy: Its place in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Karraker, K. H., & Lake, M. A. (1991). Normative stress and coping processes in infancy. In E. M. Cummings, A. Greene, & K. H. Karraker (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Life-span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Hillsdale, NJ: Erlbaum.
- Kochanska, G. (1998). Mother-child relationship, child fearfulness, and emerging attachment: A

-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4(3), 480-490.
- Kogan, N. P. (1997).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in mothers and infa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 Lamb, M. E., Sternberg, K. T. (1990). Do you really know how day-care affects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1, 351-379.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6). Characteristics of infant child care: Factors contributing to positive caregiv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269-306.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5), 860-879.
- Phillips, D., & Howes, C. (1987). Indicators of quality in child care: Review of research. In D. Phillips (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 (pp.1-20). Washington, DC: NAEYC.
- Schanberg, S., & Field, T. (1987). Sensory deprivation stress and supplemental stimulation in the rat pup and preterm human neonate. *Child Development*, 58, 1431-1447.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Fox (Ed.), *Emotion regulation: Behavior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onographs*, 59, 25-52.
- Tronick, E. Z. (1989). Emotions and emotional communication in infants. *American Psychologist*, 44, 112-126.
- Tronick, E. Z., & Cohn, J. F. (1989). Infant-mother face-to-face interaction: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coordination and the occurrence of miscordination. *Child Development*, 60, 85-92.
- Weinberg, M. K., & Tronick, E. Z. (1999). Infant Caregiver Engagement Phases(ICEP). Unpublished manuscript, Children's Hospital and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MA.